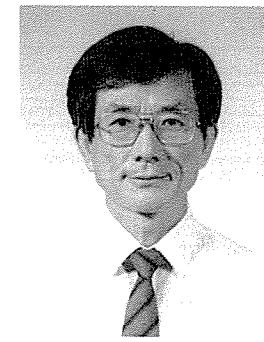
과학 에세이

노루가 뛰노는 출근길



張 會 翼
〈서울대 교수 / 물리학〉

전철역 옆으로 새로 이사한 덕분에 나는 학교 출퇴근하는 새로운 즐거움을 얻었다. 굳이 개인용 차를 몰고 나오거나 번거로운 시내버스에 시달리지 않고도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소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전철을 타고 서울대학교를 다녀간 사람은 누구나 경험했겠지만 '서울대입구' 전철역에서 내려 학교를 걸어 들어가려고 했다가는 이만저만 곤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전철역에서 교문까지가 1.8km요, 교문에서 학교 본부 앞까지가 다시 8백m나 되니 서울대 안의 어느 건물을 찾아 가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략 2.5km에서 3km는 족히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손쉬운대로 택시를 탄다거나 다소 기다리는 불편을 무릅쓰고 교정으로 들어가는 좌석버스를 타기도 한다.

새로 찾은 숲속의 산

나에게도 바로 이 점이 문제였다. 전철역에서 내려 다시 번거러운 교통수단을 이용할 바에야 애초부터 전철을 탈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재미있게 해결되었다. '서울대입구' 또는 '낙성대' 역에서 내려 산길로 학교 안까지 걸어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이다. 이 길에 대해서는 전부터 동료 교수들에게 들은 바 있기는 했으나 이런 먼 거리를 이상한 산 속으로 어떻게 다니랴 싶어 아예 출퇴근 방법으로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랐다. 일단 번잡스런 시가지를 한참 지나 산길에 들어서면 우선 피부로 느껴지는 느낌부터가 다르다. 수목의 싱그러운 냄새며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주변의 한적한 분위기란 내가 왜 이런 곳을 좀더 일찍 활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마저 종종 해보게 된다.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나 지루하게 느껴진 일이 없다. 이런 여건 아래서라면 좀더 멀더라도 사양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다.

重症의 '자동차 병'

오직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이 산길이 지하철역에서 바로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산길로 들어서기까지는 몇몇 골목길들을 가로질러야 하는데 그때마다 어디서 차들이 그렇게 나타나는지 큰 길은 큰 길대로 좁은 길은 좁은 길대로 꽉꽉 메우면서 위협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도 여기는 나은 편이다. 출퇴근 시간 서울 시내 그 어느 골목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지나다닐 곳이 있는가?

사실 우리 땅은 그 어디를 가나 작은 구릉과 개울 그리고 야산으로 이어진다. 그저 손대지만 않고 두면 어디를 가나 공원과 다름없는 정겨운 산길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거리 환경이 왜 이렇게 살벌해졌는가? 그 원인은 자동차에 있다. 자동차 때문에 길을 넓히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한다. 그리고 온 산천을 이러한 도로망으로 구획해 버린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소음과 분진을 내뿜으며 자동차들이 온통 생사를 다투듯이 달리고 있다. 이것을 외계에서 온 그 누가 본다면 이 지구 생명이 '자동차 병'이라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진단할 것이다.

이 병의 증세는 이러하다. 일단 자동차가 생기면 이는 차를

안가진 사람에 비하여 가진 사람에게 편리하다. 그러므로 차의 대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차만 늘어나고 길이 늘어나지 않으면 불편하다. 그러므로 길이 늘어나게 된다. 차가 늘어나고 길이 늘어나는데 차를 안가지면 더 불편하다. 그리하여 차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리하여 결국은 온 산천을 길과 차로 뒤덮고 이 안에 살아 있던 자연 생태계를 완전히 죽여 버린다. 사실 우리 생태계는 지표면 전체가 하나의 조화된 몸이어서 그 어느 한 부분을 건드려도 상처가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자동차 병'에 의해 무서운 아스팔트 도로망으로 토막토막 모두 잘려 버렸으니 이제 다시 소생할 수 있을런지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脈이 통하고 氣가 흐르게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될 것인가? 그 처방은 쉽고도 어렵다. 쉽다는 뜻은 지금 이 순간에라도 모든 자동차를 파기해 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병균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당분간 불편하겠지만 우리는 이것 없이도 수 십만년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결코 필요불가결한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면 당분간 많은 고통이 따를 것임은 틀림없다. 마약에 중독되기는 쉬워도 벗어나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어려운 처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통을 줄이면서 마약을 끊는 작전을 상기하자. 우선 자동차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게 되도록 하는 정책부터 세워야 한다. 모든 종류의 정보통신기술을 장거리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차를 타고 다녀야 할 필요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대중 교통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켜 개인 차의 필요성을 줄여 나간다. 사실상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재력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오직 현명한 정책과 대중적 이해만 얻으면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구 생태계를 원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멸종된 동식물을 되살려낼 방법은 없겠지만 적어도 기존 도로에 의해 잘려나간 생태녹지만이라도 복원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생태녹지망'을 형성함으로써 전 국토의 녹지를 도로에 의해 차단됨이 없이 모두 생태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기존 도로의 많은 부분이 폐쇄되거나 지하로 들어가야 할 것이니 적지 않은 불편과 번거러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산천의 '맥'을 통해 생명의 '기'가 흐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오로지 '실험실 생물'만을 남겨 놓을 것인가 하는 중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여기서 물론 사람의 이동을 비롯한 인위적 유통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구 생명의 바탕인 지구 생태계의 건강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생명의 '기'를 차단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필수적 유통수단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며, 앞으로의 기술은 마땅히 이를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녹지망' 다시 살려야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선조들이 일찌기 산천의 '기맥'을 중시하던 일은 놀라운 탁견이라 여겨진다. 이들은 물론 과학적 사고가 아닌 그 어떤 직관에 의해 이러한 지혜에 도달했을 것인데, 정작 생태학 등 과학을 통해 이러한 점을 이해한 우리가 오히려 이를 저버리고 산천의 '기맥'을 마구 끊어 지구 생명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아이러니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내가 새로 찾아내어 좋아하고 있는 출근 길도 실은 생명의 '기'가 끊긴 죽은 맥이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노루나 토끼는 고사하고 개구리 한마리 보지 못했다. 우거진 숲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간혹 다람쥐 몇 마리는 만날 듯하나 그것 또한 없다. 생태적으로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내가 말하는 '생태녹지망'은 죽은 '기'를 연결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생태계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찾아낸 이 출근 길도 백두대간으로부터 뻗어내리는 이 땅의 '생태녹지망'에 연결하여 생태적으로 되살려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오직 아카시아 숲과 간혹 지저귀는 새소리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이 오솔길에서 노루도 토끼도 다람쥐도 만나게 될 것이다. 아, 그리고 여우도 늑대도 새끼 곰도 다시 만날 수 있을런지? 정말로 덧없는 꿈만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ST